

건축시론

A Current View of Architecture

이해성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by Lee Hae-Seong

세기(世紀)와 세대(世代)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문턱에 와 있고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처지이다. 또 이에 더해서 기성세대가 새 세대로 교체되는 양상도 만만치 않다. 의미내용으로 본다면 세기(Century)라는 말은 100진법(進法)이라는 개념외에는 별다른 뜻이 없다. 다만 신세기(新世紀)나 세기말현상(世紀末現象)이니 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특징지어지는 시기를 표상하는 뜻은 있다. 우주개발의 신세기를 열었다든지 혹은 병적이고 퇴폐적현상이 만연된 시기를 세기말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로 미루어 생각하면 세기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계기(契機)로서가 아니고 새로운 진보나 진화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 인간의 의식, 사고, 행동양식, 가치관, 그 밖에 도덕률이나 윤리관마저도 전환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내용이 없다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진입만으로 말하는 세기가 바뀐다라는 말은 아무 뜻이 없는 시간의 분절(分節)일 뿐이다.

현 상황을 살필 때 우리가 2000년대를 신세기로 기대한다는 것은 가령 우주세기가 보다 확실하게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고, 핵융합력이나 초전도체를 쉽게 쓸 길을 열어서 또 한 차례의 에너지혁명을 이루어내고, 식량부족이나 질병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생명공학이 찾아내고, 천연자원의 고갈을 신소재(新素材)로 메꿀 수 있고, 뇌의 기능을 확대연장 할 수 있는 도구를 더 발전시켜서 기술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엔트로피(Entropy)를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신할 길이 보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15만년동안이나 유지해온 존재의 사슬(Chain of Being)에서의 정점(頂點)을 계속 확보할 또 한번의 전환이 전개되는 세기를 말한다. 이런 일들은 전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몫이다. 까닭에 신세기의 주도적 역할은 과학과 기술에 의존해야 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런 신세기를 수용하는 건축이 바로 신세기의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논란의 여지라는 것은 이 신세기에서 얻어지는 문명성의 과실만으로 인류의 자유, 행복, 해방이라는 염원이 충족될 수 있느냐라는 차원의 논란을 뜻한다.

이와 비교할 때 세대(世代)라는 개념은 세기와는 다르다. 영어의 Genius, 또 그 복수형(複數形)인 Genera에서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되었으며 이것이 번역되어 세대라고 표기된다. 한 세대란 태어난 때가 비슷하고 시대적 경험을 공유(共有)하며 사고(思考)하는 방법이나 취미, 그리고 행동양식(行動樣式) 등이 공통인 일정한 연령층을 말한다. 까닭에 같은 세대는 정신적으로나 형상적(形相的)으로 독특한 특질성을 나타낸다. 물론 세대는 세기나 시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세기나 시대의 전환과 세대의 교체(Alteration of Generation)와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세대가 교차된다는 것은 한 연령의 층이 다른 연령층으로 바뀐다는 뜻도 있고 위에 말한 특질성이 달라진다는 뜻도 있다. 인쇄문화시대의 세대와 영상문화시대의 세대, 근검절약시대의 세대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의 세대, 논리와 관념의 시대의 세대와 직관과 감각시대의 세대, 공동체적문화 시대의 세대와 개성적 다양문화 시대의 세대 등에서 짐작이 가듯이 세대의 특질이 시대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도 하나 세대교체는 교체주기가 연령층으로 구분되는 까닭에 시대조류의 변화에 비길 수 없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교체주기는 일반적으로 30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 세기동안에 적어도 세번이상의 세대교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1970년 전후를 젊어진 세대가 앞장 서 있고 2000년에는 이들도 기성세대가 되고 새 세대로 교체될 것이다. 건축에서 1910년 전후를 젊어졌던 세대를 근대주의 건축의 제일 세대로 보았듯이 이들이 21세기의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 세대교체의 30년 주기설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 한때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매 3년마다 배가(倍加)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그 시간이 100일도 안 걸린다고 한다.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개발확대되면서 계속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 세대의 특질성을 30년이나 지탱하기는 어렵다.

개혁(改革)과 혼돈(混沌)

인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연탐구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이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기 위한 일련의 작업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 후 지금 이 순간까지 과학과 기술의 혁신작업이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과 기술의 진전계기가 나타날 때마다 위기설과 말세론이 퍼졌고 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혼돈과 혼란이라고 했다.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고 시대가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환과 변화를 인식하려들지 않고 외면하거나 또는 그것을 소화(消化)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소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축이 빚어낸 것이 혼돈과 혼란이다. 그들의 고루한 의식은 결국 이 혼란을 피하고 수구(守舊)와 회고(回顧), 그리고 환상(幻想)으로 빠졌다. 그러나 혁신과 전환을 이끌어내고 기대를 거는 측에서는 이 혼란과 혼돈의식이 용납될 수 없고 오히려 혼란이나 혼돈이라는 개념조차도 부인했다. 까닭에 신세기가 전개되는 상황과 세기말적 상황은 같은 시대의 표리(表裏)인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시대를 보는 석학들의 눈도 같지 않았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자 Oswald Spengler와 영국의 역사학자 Arnold J. Toynbee가 “서양의 몰락”과 “역사의 연구”라는 대단한 저술을 펴냈다. 두 사람 다 세계의 중심문명은 서양문명이고 또 문명은 생명체와 같아서 탄생하고 성장하며 성숙된 후에 사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Spengler는 서양문명은 하강기(下降期)에 들어서 있어 21세기에는 몰락한다고 예언하였으며 Toynbee는 서양문명만이 성장기에 있고 다른 문명은 유산되거나 발육이 정지되었다는 견해를 폈다. Spengler는 서양문명이 그 중심력을 잃고 쇠망(衰亡)과 해체(解體)단계에 와 있다고 예언했고 Toynbee는 서양문명이 그 중심력을 잃지 않았고 그 집중력과 팽창력으로 주변문명을 지배하며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런 견해차이는 중심문명과 주변문명사이의 역학적 작용변화의 인식차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견해차이도 또 하나의 혼돈 요인이다. 세계문명 중심의 서점설(西漸說)이 나온 것도 이 차원에서의 피상적(皮相的) 가설이다. 영국에서 발상(發祥)된 모더니즘(Modernism)의 전파(傳播) 역정(歷程)을 여기에 비기면 흥미있는 해석을 찾는다.

동질문화(同質文化)와 이질문화(異質文化)

원래 과학이나 기술에서 얻어낸 문명은 민족이나 지역, 또 국가나 종교에 관계없이 이전되고 전파되는 속성(屬性)을 가졌다. 또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사회공산주의(社會共產主義)도 같은 속성이다. 그래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목표로 삼았다. 설혹 그 수준의 차는 있다고 하나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속성에다 기반을 둔 모더니즘이 세계성과 국제성을 띠고 전파 이전을 거듭한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생산분배(生産分配)에 기계적원리(機械的原理)가 절대적일 때 문명의 동질성(Homogeneous)이 지배적 현상이 된다. 문명을 이용하여 인간의 가치실현을 겨냥하는 문화도 동질화현상에 대하여 늘 회의(懷疑)를 느끼면서도 이에 휘말렸다. 이 문화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동질성의 문화를 만들었다. 과학과 기술은 지금도 그 속성을 그대로 지니면서 개혁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공산주의는 바로 이 속성 때문에 위기에 처해졌고 해체에 직면했다. 인공이 아닌 자연(自然)이란 그 자체가 다원적(多元的)이고 다양한 까닭에 획일적이고 보편적 기준만으로는 인식조차 안된다. 더우기 인간의 실존적 세계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세계는 보편적 세계가 아니다. 현대의식이 동질화 현상에 회의를 느꼈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모더니즘이 도마에 오르고 보편성과 다원성 사이에 충돌이 생겼다. 동질성 문화와 이질성(Meterogeneous) 문화의 대치(對峙) 국면이 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공세계(人工世界)에 대한 인식과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고 관념적 해석과 실존적 해석 사이의 대치이다. 그러나 현 인류문화의 상황으로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탈자본주의(Post Capitalism)나 탈근대주의(Post Modernism)가 마치 보편성과 획일성을 띤 동질문화경향에서 탈출할 길을 찾고 있는 것같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 근대주의와 단절하려는 뜻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된다. 다만 보편화나 동질화를 수정하려는 계기를 찾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연유에서 Post라는 합성어의 뜻을 “탈(脫)”보다는 후기(後期)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즉 이제부터 전개되는 시대는 후기자본주의 시대이고 후기근대주의 시대로 일단 규정하자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볼 때 과학기술이나 자본주의체제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목표를 향한 수단(手段)이고 방편(方便)이다. 보편성이나 획일성, 그리고 동질화는 근대의 수단과 방편이 빚어낸 모양새인데 인류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 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표상이 될 것이라면 예측과 기대에서 빚나간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수정을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후기자본주의와 후기 근대주의가 맡은 과제이다. 계속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수단과 개혁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방편을 동원해서 인간의 본태적 모습인 문화인류학적 다원성과 다양성속에서 각 특성을 살려내고 그 공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얼마든지 복제될 수 있는 동질성문화가 아니라 개성이 생동하는 이질성문화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 과제가 제기된 것은 20세기 후반기 초에 그 증후가 나타났으며 60년대 초에 P.A誌가 토론과제로 삼고 있다. 조형주의(Formalism)나 후기합리주의, 또 건축심리론, 건축환경론, 감각주의(Sensualism)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다만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일은 이 이질성을 복고(復古)와 절충(折衷), 그리고 형태만을 위한 형태에서 얻어내려는 동향이다. 극단적인 심미주의(審美主義)가 신세기의 모습이 아닐 것 같은 생각에서이다.